

Suwon District Court Anyang Branch 2018 godan135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고단 1355

Incident: 2018 Public Property Damage  
Defendant: Tae Yong Jeong

3 December 2018

## WRITTEN SUBMISSIONS IN FAVOR OF THE DEFENDANT

YOUR HONOR,  
존경하는 판사님

It is an honor to submit before you the following written arguments in favor of the defendant, Mr. Tae Young Jeong. I am a lawyer retained by Mr. Jeong for his defense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Executive Director of *Avant-Garde Lawyers*, a collective of international lawyers committed to protecting and expanding the space for freedom of artistic expression in courtrooms and defending the rights of artists all over the world.

피고인 정태용을 대리하여 본 서면을 제출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피고 정태용의 국제인권법 관련 변호를 맡은 변호사이며, 전 세계 예술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정에서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그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헌신하는 국제 변호사들의 단체인 Avant-Garde Lawyers 의 상임이사입니다.

FACTS  
사실관계

On 6 June 2018, Memorial Day, the defendant spray-painted the Berlin Wall, at Berlin Square in Seoul, drawing patterns, pictures and statements such as: “-HIDEYE5”, “I have seen a new light shining on me I wonder whether that light will make my eyes sparkle...”, “LOOK INSIDE”. The defendant did so without asking permission from the Jung-Gu District of Seoul City which manages the site. He describes his work as graffiti. On 27 August 2018, Mr. Jeong was charged with destruction of public goods, Article 141, paragraph 1 of the Korean Penal Code. The Prosecutor’s Office made a proposal for a prison sentence of one year.

2018 년 6 월 6 일 피고는 서울 베를린 광장의 베를린장벽에 스프레이 페인트로 도안과 그림을 그리고, “-HIDEYE5” , “I have seen a new light shining on me I wonder whether that light will make my eyes sparkle...” (나는 새로운 빛을 보았고 그 빛이 나의 눈을 반짝거리게 할지 궁금하다), “LOOK INSIDE” (내면을 보라) 등의 글귀를 적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그 광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중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씨는 자신의 행위를 그리피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8 년 8 월 27 일에 정씨는 한국 형법 141 조 1 항에 따라 공공기물 훼손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정씨에게 1 년의 징역을 구형했습니다.

## MATTER

Your Honor, it is my firm position that a criminal conviction against Mr. Jeong would amount to an unjustifiable and disproportionate penalty and that Mr. Jeong should be acquitted of the charges against him. My submissions today focus on the need to place Mr. Jeong’s action in the larger context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remind this Court of the international obligations it is held to respect, obligations which emerge from South Korea’s membership of the United Nations and its allegiance to democratic values and the greater community of free societies.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정태용을 형사처벌하는것은 부당하고 지나친 처사가 될 것이며 정태용이 무죄로 판단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출하는 제 서면은 정태용의 행동을 표현의 자유라는 더 큰 맥락에서 다루어야 할 필요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본 법정에서 마땅히 수호해야 할 국제법적 의무와 민주적인 가치와 자유사회에 복무하는 국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가진 책임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 ARGUMENTS

### 법률적 논거

It must be said at the outset that the most important error of the Prosecution in this case is that in assessing the facts before them, they have ignored the context-specific character of the act performed by Mr. Jeong on 6 June 2018. In the absence of an explanatory context, Mr Jeong’s spray-painting can be easily dismissed as senseless provocation and destruction of public property. Therefore, a proper assessment must be made of the *nature* of Mr. Jeong’s drawing, in particular of its *expressive character*, as well as of its *purpose* and *intention*.

먼저 검찰측의 가장 중대한 오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때, 2018 년 6 월 6 일에 정씨가 한 일에 대한 맥락-특정적인 성격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맥락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정씨의 스프레이 페인팅은 무의미한 일탈과 공공기물의 파괴로 치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태용의 작품의

본질, 특히 그 표현으로서의 성격, 그 목적성과 의도가 합당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I will argue:

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First*, that criminal proceedings were instituted without a proper consideration of what constitutes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is case i.e.: the author's intention; the specificity of graffiti as a form of expression; the purpose and content of the graffiti under consideration; the subsequent attitude of Mr. Jeong; and his participation in the restoration work.

첫째, 이 사건의 형사소송절차는 무엇이 이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구성하는 것인지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즉, 작가의 의도, 표현의 한 형식으로서 그래피티가 가지는 특성과 그가 심사숙고했던 그래피티의 목적과 내용, 작가의 그 후 태도는 물론이고 복구 작업에 참여했던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Second*, that the institution of criminal proceedings against Mr. Jeong amounts to a disproportionate interference with his freedom of expression, in breach of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둘째, 정씨를 형사기소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21 조 및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Third*, and most important, that a criminal conviction in this case would be unjustifiable as a penalty and that it would have a chilling effect on other forms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셋째, 가장 중요한 논지는 정씨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는 처사이며, 이는 또한 한국에서 기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1. The facts, in light of the particular circumstances of the present case  
이 사건이 가진 특수한 상황의 측면에서 본 사실관계들

### **1.1. The intention of the author**

#### 작가의 의도

Your Honor, when Tae Young Jeong aka HIDEYES decided to spray-paint the Berlin Wall on 6 June, his intention was clear: to honor the Memorial Day and celebrate the April 2018 inter-Korean Summit, a first step towards reconcili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eleven years. In my client's own words, expressed in a private exchange of emails between us: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태용 aka 히드아이즈가 6 월 6 일 베를린장벽에 페인팅을 그리기로 결정했을 당시, 그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그는 현충일을 기념하고 11 년 만에 이루어진 남과 북의 화해를 향한 첫 걸음인 2018 년 4 월 남북정상회담을 축하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주고받은 개인적인 이메일에 의뢰인이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I thought that the drawings on the Berlin Wall pieces were the symbols of the East-West division regardless they were made to wish for reunification. Korea's North-South relations have become a current social issue as President MOON Jaein hosted the North-South summit for the first time in 11 years. That was my primary theme in the work although it also includes my "private intentions" as well. Overall, the work was transformation of the design elements and colors of our national flag Taegukgi superimposed on the symbol of the (East-West) division.”

“나는 베를린장벽 부분의 그림이 그들이 통일을 염원하며 작성한 것이라는 고려없이(regardless) 동서 분단의 상징이라고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 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남북 관계는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나의 사적인 의도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것이 작품의 주요 테마였다. 전반적으로 이 작품은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의 디자인적인 요소와 색상을 변형해 분단이라는 상징에 겹쳐 그린 작품이다.”

Your Honor, Mr. Jeong's intention was not to destroy but to create - to construct and communicate a message of peace and reconciliation in a creative and original manner. Tae Young is an artist in South Korea, registered as such with a government agency (please see, Annex 1). As an artist, his job is to use non-verbal and symbolic means of expression to speak about the social and political realities of his time. His painting on the Berlin Wall fulfils precisely this purpose. It uses symbols, forms and colour to transfer the viewer's attention from the object, to its social and political context. In his graffiti, HIDEYES used the symbol of the Taegukgi, its colors and shape, and the ying-yang symbol in the middle of the Korean flag, to speak about separated families and the hope for reunification, a sensitive and topical social and political issue.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태용의 의도는 파괴가 아니라 창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방법으로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만들고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태용은 국가기관에 등록된 대한민국의 예술가입니다(참조, 첨부 1). 예술가로서 그가 하는 일은 비언어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수단을 사용해 당대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를린장벽에 그린 그의 그림은 정확하게 이 목적을 충족합니다. 기호와 형상 그리고 색상을 사용해 사람들이 이 장벽을 오브제가 아닌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맥락으로 바라보도록 이끕니다. 작품을 통해 그는 우리 사회에 민감하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존재하는 이산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통일의 염원을 말하기 위해 태극기의 상징과 색상과 형태 그리고 국기 중앙의 태극 문양을 변형했습니다.

HIDEYES appropriates the Berlin Wall and makes it Korean, a gesture perfectly consistent with the Wall's historic value and symbolism and even with the motive invoked by the Mayor of Berlin, Klaus Wowereit, in 2005 when he gifted the Wall to the City of Seoul. On the occasion, he said the Wall was a sign of friendship and solidarity with a likewise divided country.<sup>1</sup>

하이드아이즈는 베를린장벽을 전유하여 한국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 장벽이 서울시에 기증될 때 베를린 시장 Klaus Wowereit가 소구했던 장벽의 역사적 가치 및 상징성과 부합하는 형태입니다. 당시 시장은 벽이 분단국가 간의 우정과 연대의 표시라고 말했었습니다.

In "The Wall Speaks" Sigrid Mayer describes the important role of the Berlin Wall as a visual sign and symbol as follows: "In case of the Berlin Wall, we find a curious situation of two different addresses or audiences because the Wall speaks with a Janus face. The message to the East is 'You cannot and must not go out' while the message to the West is 'You cannot and must not come in'. Seen as such, the Wall itself is one gigantic traffic sign whose object is an interdiction and whose message is at once one of inclusion and exclusion".<sup>2</sup>

Sigrid Mayer는 "The Wall Speaks"에서 시각적 기호와 상징으로서 베를린장벽의 중요한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베를린장벽의 경우, 우리는 상이한 두 청중이나 관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얼굴로 장벽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 면의 메시지는 "당신은 나갈 수도 나가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반면 서쪽 면은 "당신은 들어올 수도 들어와서도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를 볼 때, 벽면은 그 자체로 하나의 명령을 상징하고 한꺼번에 수용과 배제를 의미하는 거대한 도로 표지판입니다."

Your Honor, Mr. Jeong did not destroy or damage the Berlin Wall. On the contrary; he preserved its nature and main function. The Wall has served for decades as the perfect canvass for free speech; people continue to write on it, do "throw-ups", tags, graffiti. HIDEYES built on its symbolism and power to shape public memory and collective identity. He carried on the practice by embellishing the Wall with a sincere and meaningful painting that invites the Korean public to dialogue and reflection.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태용은 베를린장벽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는 그 본질과 핵심적인 가치를 보존한 것입니다. 장벽은 수십년 동안 자유로운 표현을 위한 완벽한 캔버스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sup>1</sup> See: <http://en.the-wall-net.org/seoul-rok/>

<sup>2</sup> Sigrid Mayer, (1996), "The Graffiti of the Berlin Wall: a Semiotic Approach", Schürer, Ernst (ed.). *The Berlin Wall: representations and perspectives*. New York: Peter Lang, p. 221.

사람들의 태깅(역자 주: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자신의 고유의 표지를 남기는 행위), 쓰로우업(역자 주: 본격적인 그래피티에 이르지 않지만 태깅을 넘어서는 주로 단색도형 형태의 작품), 그래피티가 꾸준히 더해졌었습니다. 하이드라이즈는 그 상징성을 구축하고 공적인 기억과 집단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행위는 한국의 시민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 깊은 그림을 벽에 그린 실천이었습니다.

## 1.2. The specificity of graffiti: application to the present case 현재의 경우를 적용한 낙서의 특수성

A contemporary socio-cultural phenomenon, graffiti has developed during the late 1960s in Philadelphia and New York. The term “graffiti” is used to denote a set of specific cultural and stylistic conventions or imagery, conventions that in turn could be divided into different pictorial categories such as pieces, tags, and b-boy characters.<sup>3</sup> Today graffiti is an institution. Museums all over the world exhibit murals and graffiti pieces.<sup>4</sup> Some are adapted to commercial uses, thus creating discord among street artists, some of whom worry about the preservation of its initial subversive and transgressive nature. A few lucky graffiti artists have graduated from the street to the auction house. Banksy pieces are removed from the street and sold at auctions for tens of millions by people who profit from the legally-ambiguous field of street art. And yet, graffiti artists have their *own language and codes*.

당대의 사회문화적인 현상인 그래피티는 1960년대 뉴욕 필라델피아에서 발전했습니다. 그래피티라는 용어는 특정한 문화적이고 양식적인 관행이나 이미지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 관행은 다시 대작(大作, 원어 pieces. 역자주: masterpiece 의 약자로서 다양한 색과 3D 효과가 들어간 역작을 의미함), 태그(역자주: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고유한 표지를 남기는 행위)와 b-boy 캐릭터와 같은 상이한 회화적 범주로 구분 가능합니다. 전 세계의 박물관에서 벽화와 그래피티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은 상업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리트 아티스트들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들 중 몇몇은 그 최초의 전복적이고 위반하는 본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몇몇 운이 좋은 예술가들은 거리를 벗어나 경매장으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뱅크시의 작품은 거리에서 없어진 후 법적으로 애매모호한 거리 예술 분야에서 이윤을 얻는 사람들에 의해 경매장에서 수천만 달러에 거래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래피티 작가들은 자신의 언어와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sup>3</sup> Jacob Kimvall, (2014), *The G-WORD*., Dokument Press p. 19.

<sup>4</sup> See, among others: "Graffiti", Boijmans Museum (1993), Rotterdam, Netherlands; "Street Art", Tate Gallery (2008), London, United Kingdom; " Le Tag au Grands Palais", Grand Palais (2009), Paris, France; "LASCO PROJECT", Palais de Tokyo (2012-2018) Paris, France; "Histoire(s) de graffitis", Conservatoire National des Monuments Historiques, (2018), France; "Art in the street", Museum of Contemporary Art, (2018), Los Angeles, United states of America.

In the ephemeral and ungoverned world of graffiti, if one paints over another's work, the new graffiti must be better than what stood before. And this is as close to a law as there is; a practice called *toying*. Graffiti is ephemeral and rebellious in essence. Nobody expects it to last forever. When HIDEYES painted over the initial markings on the Berlin Wall he thought he could do better.

일시적이고 무정부적인 그래피티의 세계에서, 만약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작품에 그림을 그리면, 새롭게 그려진 그래피티는 이전의 그래피티보다 나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 사이의 법과도 같습니다. 이 행위를 그들은 *toying* 이라고 부릅니다. 그래피티는 본질적으로 일시적이고 반항적입니다. 그 누구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HIDEYES 가 베를린 장벽에 그림을 그렸을 때 그는 자신이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The state of the Berlin Wall before the defendant's graffiti* is best described in the Expert Opinion joint to this brief:

피고의 그래피티가 그려지기 전 베를린장벽의 상태는 아래의 전문가 의견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The back side of the Wall was plain grey. On the front there were some traces of old graffiti, especially on the left piece. It looks like part of a “throw-up”, a graffiti painted very quickly to mark one's name on trains or walls. No graffiti writer expects it to last. A throw-up is not seen as a piece of art or as something to be reproduced or protected. If the graffiti had not been in such a state I might even have been able to find the original artist. But they were very damaged and of no historic value. Most probably, in a few years they will completely fade away. The three chunks of the wall themselves also seems to have been already severely damaged after the fall of the wall by people picking pieces as souvenirs. It is obvious that the three pieces were not together on the original wall but separated.” (please see, “Expert Opinion” of Don Karl, Annex 2)

“벽의 뒷면은 회색이었습니다. 앞면에는 오래된 낙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throw-up”처럼 보이기도 했고, 기차나 벽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 재빨리 칠해진 그래피티 같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그래피티 작가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Throw-up 은 재생산되거나 보호되어야 할 그 무엇이나 예술 작품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래피티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놓여있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원작자인 예술가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벽은 너무 많이 손상되었을뿐더러 역사적인 가치도 없습니다. 거의 확신하건대, 몇 년 안에 그 그래피티는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벽의 세 부분은 베를린장벽이 무너진 뒤 사람들이 무너진 조각을 기념품으로 주워가면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벽의 세 부분은 일체가 아니라 원래부터 분리되어 있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please see, “Expert Opinion” of Don Karl,

There is a *certain technique* that goes beyond spray cans, a search for colors and forms and HIDEYES has proved his mastery in this sense. He has carefully planned and executed the graffiti and the result was original and beautiful. According to graffiti expert, Don Karl: “It was a beautiful and meaningful work which could well have had an important historic meaning in the future, just like some of the pieces in Berlin have become a national treasure at the East Side Gallery.” (“Expert Opinion”, Annex 2). In the same sense, the German newspaper, *Monopol Magazin für Kunst und Leben*, affirms in July 2018: “Who knows if HIDEYES' graffiti was not be removed now, it would perhaps at some point stand for a significant historical moment: 2018, the year in which North and South Korea have approached each other.”<sup>5</sup> Likewise, the Korean mass-media, notes in a recently published article by art critic, Kyoungmi Oh: “Jung Tae-yong's, graffiti was also an artistic expression that awakened the wall's historic and cultural utility, which had been neglected and forgotten. It would be worthwhile to have a debate on whether we should simply enjoy the trace of the West Germans by eye, or let people approach it freely, thereby allowing an active interaction with the emotions of the time; this would be a heated discussion not just on this wall, but other cultural artefacts.”<sup>6</sup>

“베를린장벽에 정태용이 그린 그라피티에는 스프레이캔 그 이상의 고유한 테크닉, 색과 형식에 대한 탐구가 있습니다. HIDEYES 가 그의 전문성을 입증한 근거입니다. 그는 신중하게 그라피티를 계획하고 실천에 옮겼으며 결과는 독창적이었고 아름답습니다. 그라피티 전문가 돈 칼에 의하면, EAST SIDE GALLERY 에서 몇 점의 작품이 국보로 지정되었듯이 이 작품도 미래에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작품입니다(“Expert Opinion”, Annex 2). 같은 의미에서 독일 신문 Monopol Magazin für Kunst und Leben 은 2018 년 7 월에 보도하기를 “HIDEYES 의 그라피티가 지금 제거되지 않았다면 미래에 남과 북이 서로에게 다가간 2018 년을 상징하게 될지 누가 알 것이란 말인가?” 마찬가지로, 최근 한국의 대중 매체는 미술비평가 오경미의 글을 실었습니다: “정태용 작가의 그라피티는 방치돼 잊히고 지워지고 있었던 장벽의 역사적·문화적 효용성을 일깨우는 예술적 의견이기도 했다. 서독 시민들의 흔적을 눈으로만 감상하게 할 것인지,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여 두 국가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교감하게 할 것인지 등은 이 장벽을 포함한 문화적 상징물 향유에 있어 매우 논쟁적인 사안일 것이다.”

<sup>5</sup> The text in original: “Wer weiß, würde Hideeyes' Graffiti jetzt nicht entfernt, würde es vielleicht auch einst für einen großen historischen Moment stehen: 2018, das Jahr in dem sich Nord- und Südkorea angenähert haben.“. See at: <https://www.monopol-magazin.de/suedkoreaner-bespruecht-berliner-mauer-seoul>.

<sup>6</sup> Kyoungmi Oh, (2018), “Is Cheonggyecheon Berlin Wall Graffiti Really A Crime? The text in original”: 정태용 작가의 그라피티는 방치돼 잊히고 지워지고 있었던 장벽의 역사적·문화적 효용성을 일깨우는 예술적 의견이기도 했다. 서독 시민들의 흔적을 눈으로만 감상하게 할 것인지,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하여 두 국가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교감하게 할 것인지 등은 이 장벽을 포함한 문화적 상징물 향유에 있어 매우 논쟁적인 사안일 것이다. The entirety of the text, available at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182042015#csidx5189b00c7894a428cc75181d7537675](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11182042015#csidx5189b00c7894a428cc75181d7537675).



Kyung-Sin Park, a freedom of speech expert in South Korea, referring to the graffiti under consideration, declares: “Couldn't even a piece of concrete be a piece of art, if it moves through generations and places with people of different countries adding their desire for reunification and peace on it? If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restore the drawings that have been covered, then one could do that by using modern technology and pictures taken from the past - I think it would be beautiful if we can only see the more recent drawings through the eye but can see the covered drawings underneath through a 3D hologram, for instance. When the Korean Peninsula finally achieves peace and reunification, perhaps it would be nice to send the wall to another area of separation or ongoing conflict, inviting the people there to cover the wall with drawings hoping for peace/reunification?”<sup>7</sup>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전문가인 박경신 교수는 정태용의 그래피티를 언급하며 말했습니다. “시대와 장소를 옮겨가며 여러 나라 사람들의 통일과 평화의 염원이 덧씌워지는 콘크리트 덩이도 하나의 예술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덮혀 씌워진 그림을 꼭 복원해야했다면 과거에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요즘 기술로 재연도 가능할테고 - 육안으로는 최근 그림만 보이더라도 홀로그램으로는 그 아래 비춰진 그림을 3D 로 볼 수 있는 형태도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결국 평화/통일이 정착되면 그 장벽을 제 3 의 분단/분쟁지역에 보내서 거기서 마음대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그림을 덧어씌우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Graffiti is first and foremost *a form of expression highly dependent on its context*. The place where it is performed and the support it is performed on bear the same importance as the painting itself. In graffiti, the artist is in direct contact with the reality, there is no intermediary.<sup>8</sup> His implication is “urgent, necessary and spectacular”<sup>9</sup>.

그래피티는 무엇보다 문맥에 크게 의존하는 표현 형식입니다. 그것이 그려지는 장소와 행위가 남겨지는 물체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피티의 경우 예술가는 매개자 없이 현실과 직접 마주합니다. 예술가가 함축하는 것은 “긴급성, 필요성 그리고 구경거리” 입니다.

*The support* of the graffiti in this case as the Berlin Wall in Seoul, a wall already full of drawings from Korean passers-by. HIDEYES chose the Berlin Wall for its historically charged meaning. He could not have done the graffiti on a train or a building. And this is an

<sup>7</sup> FACEBOOK, K.S. Park(박경신)'s Facebook posting on November 24, 2018: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006493716063681&id=100001092175740](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006493716063681&id=100001092175740). The

text in original: 시대와 장소를 옮겨가며 여러 나라 사람들의 통일과 평화의 염원이 덧씌워지는 콘크리트덩이도 하나의 예술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덮혀씌워진 그림을 꼭 복원해야했다면 과거에 찍어놓은 사진도 있고 요즘 기술로 재연도 가능할테고 - 육안으로는 최근 그림만 보이더라도 홀로그램으로는 그 아래 비춰진 그림을 3D 로 볼 수 있는 형태도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결국 평화/통일이 정착되면 그 장벽을 제 3 의 분단/분쟁지역에 보내서 거기서 마음대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그림을 덧어씌우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sup>8</sup> Paul Ardenne, (2002), *Un art contextuel*, Champs arts, p. 41.

<sup>9</sup> Idem., p. 70.

important distinction considering the different impact and consequences a graffiti can have, depending on whether it is on the Berlin Wall - a construction with no functional role, as opposed to its impact if done on a public building or a duty office. And yet, according to Korean law, these are all “public goods”. Your Honor, it is your duty to apply the *rule of lenity* to any unclear or ambiguous law in the manner most favorable to the defendant.

서울의 베를린장벽이라는 이 경우 그래피티의 화폭이 장벽은 이미 행인들의 낙서로 가득했었습니다. HIDEYES 는 역사적으로 논쟁적인 의미를 위해 베를린 장벽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기차나 빌딩에 그래피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피티가 기능적인 역할이 전혀 없는 베를린장벽에 그려졌는지, 공공건물이나 관청 건물에 그려졌는지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가 기차나 빌딩, 공공건물이 아닌 베를린장벽에 그래피티를 그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나 한국법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공공시설”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법에 대해 피고에게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관대함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재판장님의 의무입니다.

*The legal status of graffiti* differs depending on the country. There is, however, an increasing trend across the world, not only to recognise illegal graffiti as creative acts but also to argue that illegality is not a basis for denying copyright protection for their authors. It was without the slightest hesitation that a French judge, in a case concerning illegal graffiti done on the facade of an old factory in Paris, decided that the authors of the graffiti enjoyed copyright protection (*droit d'auteur*). The District Court of Paris reminds the owner of the building it is not his duty to judge the artistic value of the graffiti, or the form of expression the author chooses.<sup>10</sup> In another high-profile case, regarding a claim for damages brought by SNCF, the French national railway company, the judge came up with the concept of “ephemeral art” to describe graffiti done on trains.<sup>11</sup> In the US, in a groundbreaking case which balanced the rights of the graffiti artists against those of a real estate developer, a federal judge favored the former and awarded them a total of \$6.7 million in damages. The reason: the owner of the old factory had failed to notify them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building.<sup>12</sup> The New York Penal Code allows for *ex post acceptance*, which means that prosecutors would be unlikely to press charges when the victim welcomes the alleged intrusion.<sup>13</sup> Finally, political or activist graffiti placed on public property, such as the

---

<sup>10</sup> *Thirty six graffiti artists v. M.L.*,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Paris, 2<sup>nd</sup> Section, 13 October 2000. For more information on this trial, see, Barbara Panvini, (2004) ; *L'invention de l'espace comme l'expression de l'identité du squat de la Granges-aux-belles*, Culture & Musées, vol.4, p.47

<sup>11</sup> *SNCF v. GRAFF IT! PRODUCTIONS et trois autres sociétés* (System Press Edition, Publia et Polimex International). Tribunal de Commerce de Paris, 2004. For more information on this trial, see : Stéphanie Binet, "La SNCF veut faire dérailler la presse graffiti", *Libération*, 17 février 2004 and Ass. plén., 7 mai 1994, no : 02-1450, available at : [legifrance.gouv.fr](http://legifrance.gouv.fr)

<sup>12</sup> Case No. 13-CV-05612(FB)(RLM); see, text of the decision at: <http://artlawpodcast.com/wp-content/uploads/2018/04/DKT-172-Decision.pdf>. In mass-media: <https://www.nytimes.com/2018/02/20/nyregion/graffiti-artists-5pointz.html>.

<sup>13</sup> N.Y. Penal Code § 145.60, McKinney 2013.

paintings of the Mothers of Plaza de Mayo in the Plaza de Mayo square in Argentina have been regarded as free speech and thus considered legal.<sup>14</sup>

그래피티의 법적 지위는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불법 그래피티를 창조적 행위로 인정하는 것뿐 아니라 불법성 때문에 작가에게 저작권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사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판사는 파리의 오래된 공장 전면에 그려진 불법 그래피티에 대해 주저없이 저작권을 인정하였습니다. 파리 지방법원은 건물주에게 그가 그래피티가 예술적인지 작가가 어떤 표현 형식을 선택할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다른 유명한 사건에서는 프랑스 국철 즉 SNCF 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판사는 “찰나적 예술“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기차에 그려진 그래피티를 설명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부동산 개발자와 그래피티 작가들 사이의 권리를 교량한 선도적인 사건에서, 연방판사는 그래피티 작가들의 손을 들어주며 6 백 70 만불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의 철거에 대해 그래피티 작가들에게 사전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욕형법은 사후승인라 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경우 검사들이 기소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의 플라자데마요에 있는 ‘플라자데마요의 어머니들’과 같은 그림 역시 표현의 자유로 그러므로 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The legal status of the pieces of the Berlin Wall varies as well. There is, on one hand, the East Side Gallery, an open-air gallery in Berlin which consists of a series of murals painted on a 1316 meters long remnant of the Berlin Wall, which has official status as a *Denkmal*, or heritage-protected landmark; and, on the other, there are many pieces of the wall left in Berlin that are not treated as national treasures; they have been left to decay in landfills, and are painted over all the time. Furthermore, many original pieces, including those offered as gifts to other countries, have been the support for contracted-graffiti work.*

베를린장벽의 법적 지위 역시 다양합니다. 그것 중 하나는 바로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입니다. 이 야외 갤러리에는 1,316 미터의 베를린장벽에 달하는 길이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베를린장벽의 벽화는 Denkman 이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문화유산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베를린에 남겨진 상당수의 장벽들이 국보로 취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립지에서 침식당하도록 내버려졌으며 재차 페인트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상당수의 원본 장벽들이 다른 국가로 선물로 보내졌으며 보내진 장벽들은 계약 하에 그래피티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

<sup>14</sup> See, *Cruces entre Madres y Pando por las pintadas en la Plaza*, INFOBAE, available at : <https://www.infobae.com/2008/03/12/368805-cruces-madres-y-pando-las-pintadas-la-plaza/>

## 2. Freedom of expression: international standards

###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기준

#### 2.1. Graffiti as “expression” in the present case

##### ‘표현’의 한 방식으로서의 그래피티

South Korea’s international obligations stem from its membership in the United Nations. All UN members, including South Korea, have signed on in agreement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refore committed themselves to guaranteeing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to everyone. Furthermore, Article 19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which South Korea ratified in 1990, provides that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cludes *the freedom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and “in the form of art”*. In the same vein, Article 10 of the 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ECHR) protects *not only the substance of the ideas and information expressed “but also the form in which they are conveyed”*

대한민국은 유엔가입국으로서의 국제적인 의무를 지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모든 유엔가입국은 세계인권선언에 서명하였으며, 따라서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데에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이 1990년에 비준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CCPR)’ 제 19 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이 권리는 구두, 서면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스스로 선택하는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sup>15</sup> 같은 맥락에서, 유럽인권협정(European Convention of Human Rights, ECHR) 제 10 조도 모든 정보와 사상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 또한”<sup>16</sup> 보호하고 있습니다.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considered, for instance, that pouring paint on statues of Mustafa Kemal Atatürk, founder of the Republic of Turkey, was an act of *political expression* performed as a protest against the political regime at the time. Likewise,

---

<sup>15</sup> Furthermore, the right to artistic freedom and creativity is explicitly guaranteed by international instruments: most notably, Article 15(3)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under which state parties undertake to respect the freedom indispensable for creative activity.

나아가, 예술적 자유와 창의성에 대한 권리도 여러 국제적 협약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 15 조 3 항이 있습니다. 이 규약에 따라 가입국들은 창의적인 행위에서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sup>16</sup> See, among many other authorities, *Oberschlick v. Austria* (no. 11662/85), § 57, 23 May 1991; and *Women On Waves and Others v. Portugal*, (no. 31276/05), §§ 29 and 30, 3 February 2009.

예) *Oberschlick v. Austria* (no. 11662/85), § 57, 23 May 1991; and *Women On Waves and Others v. Portugal*, (no. 31276/05), §§ 29 and 30, 3 February 2009.

it has found that the public display of items of dirty clothing for a short time near the Hungarian Parliament, which had been meant to represent the “dirty laundry of the nation”, amounted to a *form of political expression*. In the famous Pussy Riot case the European Court considered that the action described by the applicants as a “performance”, amounted to a *form of artistic and political expression* protected under Article 10 of the ECHR.

일례로,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터키공화국의 창립자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Mustafa Kemal Atatürk)의 동상 위에 페인트를 뿌린 것이 당시 정권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가진 정치적인 표현이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더러운 빨래”라는 상징으로 헝가리 국회 근처에서 일시적으로 더러운 옷들을 공공전시한 이들도 정치적인 견해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sup>17</sup> 잘 알려진 유럽인권재판소의 푸시 라이엇(Pussy Riot) 재판에서도 핑크락 밴드인 푸시 라이엇의 행위를 “공연”으로 보고, 제 10 조가 보호하는 예술적 혹은 정치적인 표현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sup>18</sup>

In the case under consideration, my client’s graffiti is a social and political commentary. Mr. Jeong has used his art not only as a vehicle for his ideas, feelings and political opinions but also as a springboard for debate, thus contributing to the exchange of ideas and opinions, which is essential for a democratic society.

이 사건에서, 제 의뢰인의 그래피티는 사회적 및 정치적 코멘터리입니다. 정씨는 예술을 본인의 생각, 감정, 정치적인 견해를 표현하는 수단뿐 아니라 토론과 논쟁의 발판으로 삼아, 민주적인 사회의 근본이 되는 생각과 의견의 활발한 교환에 기여하였습니다.

Your Honor, there should be no doubt as to the *expressive character* of Mr. Jeong’s spray-painting on the Berlin Wall.

존경하는 판사님, 베를린장벽에 정씨가 스프레이 페인팅을 한 것이 ‘표현’의 성질을 띠는 것에는 한 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 2.2. Non-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freedom of expression standards

###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 기준의 불이행

Your Honour, it is not my intention to dismiss the fact that my client committed an illegal act when he painted a piece of public property without permission. My intention is, however, to emphasize that in assessing the proportionality of State interference with freedom of expression in this case, special attention should be afforded to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 penalty* requested by the Prosecution.

<sup>17</sup> *Murat Vural v. Turkey*, (no. 9540/07), §§ 54-56, 21 October 2014.

<sup>18</sup> *Mariya Alekhina and Others v. Russia*, (no. 38004/12), 17 July 2018.

존경하는 판사님, 저는 제 의뢰인이 공공기물을 허락없이 페인트함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의 행위가 정당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마땅히 검찰의 구형한 형벌의 성질과 정도를 주의깊게 살펴보아야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Indeed, despite its being a well-established right in international law, freedom of expression is not an absolute right and it certainly does not give rise to the creation of property rights. In this sense, Article 19 of the ICCPR clearly stipulates that the exercise of freedom of expression includes special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nd consequently can be the subject to certain State limitations. But in order for these limitations to be justified under international law, they must be a) “provided by law”; and b)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또한 표현의 자유가 국제법안에서 매우 깊게 정착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재산권으로 변질되지 않는다는것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ICCPR 제 19 조도 표현의 자유가 특별한 책임과 의무를 동반하며, 각 나라 안에서 특정 제약을 둘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들이 국제법 아래에서 정당화되려면, 첫째로는 “법에 기반하여야”하며, 둘째로는 “민주적사회에서 필요해야” 합니다.

*Applicability of the above-principles to the present case:*

위 두 원칙의 현사건 적용:

a) “Provided by law”

“법에 기반한”

The defendant has been charged under Article 141 of the Penal Code: *Damage of Public Documents, etc. and Destruction of Public Goods* which reads:

피고는 형법 제 141 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41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It is not very clear from the above provisions how exactly the Berlin Wall or more specifically the original markings on the Berlin Wall, which the Prosecution claims were damaged by the defendant’s subsequent graffiti, are “used by a public office”. Therefore, there may be a question as to whether the restriction is “provided for by the law”. However, I do not consider that in the present case, it is necessary for me to examine whether Article 141 of the Penal Code constitutes an adequate legal basis as the lack of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for freedom of expression is to be examine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necessity of the restriction.

보시다시피, 141 조 조문만으로는 검찰이 피고로의 그래피티로 인해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는 베를린장벽, 더 구체적으로는 그 장벽에 있던 원래의 표시들이 어떻게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인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 행위에 대한 처벌이 “법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형법 제 141 조가 적합한 법률에 기반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할 때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b) “Necessary in a democratic society”  
“민주적사회에서 필요한가”

According to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form of criminal sanctions are only acceptable in cases of incitement to hatred.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s of a similar opinion: “peaceful and non-violent forms of expression should not be made subject to the threat of imposition of a custodial sentence”.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적 규범들에 의하면, 표현의 자유를 형사처벌로 제한하는 것은 증오를 선동할 때뿐입니다.<sup>19</sup> 유럽인권재판소도 비슷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평화적이고 폭력적이지 않은 형식의 표현은 징역의 위협에 처해서는 안된다.”<sup>20</sup>

Tae Young’s graffiti contained no elements of violence, nor did they stir up hatred or intolerance towards others. On the contrary, the graffiti communicated in an original and aesthetically pleasing manner a clear message of peace and reunific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nd not only is there little scope under international law for restrictions on political speech, but moreover, expression which highlights matters of general interest and incites public debate enjoys the highest level of protection, as debate is considered of paramount importance in a democratic society. The graffiti afforded - and still affords - the Korean public the opportunity to take part in a public exchange on cultural, political and social ideas and in a debate in the mass media and on social platforms regarding the importance of the Berlin Wall symbol for the Korean society, the beauty or ugliness of the defendant’s art,

---

<sup>19</sup> See, among others, *Re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Religion: the Issue of Regulation and Prosecution of Blasphemy, Religious Insult and Incitement to Religious Hatred*, CDL-AD(2008)026, Report of the Venice Commission, §§ 89-92.

예) *Re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Religion: the Issue of Regulation and Prosecution of Blasphemy, Religious Insult and Incitement to Religious Hatred*, CDL-AD(2008)026, Report of the Venice Commission, §§ 89-92.

<sup>20</sup> *Murat Vural* (n.15), § 6.

graffiti in general or the best ways to preserve the historic and cultural value of the Berlin Wall.

정태용씨의 그래피티는 폭력적인 부분이 전혀 없었으며,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나 배척을 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매우 독창적이고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확고한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국제법은 이러한 정치적 견해의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매우 엄격하게 금할 뿐만 아니라, 특히 일반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인 논의를 야기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토론과 논의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태용씨의 그래피티는 한국 시민들이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인 논의에 참여할 기회를 주었으며, 매스미디어와 사회적 플랫폼에서 베를린장벽이 한국에 상징하는 것과 피고의 예술 및 그래피티의 미적 가치, 그리고 베를린장벽의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어떻게 잘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Whether the graffiti was or was not to everybody's liking is not relevant to this discussion. Art is by definition subjective; as a US Supreme Court Justice once famously said, "One man's vulgarity is another's lyric." In fact, it is a firm posi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at freedom of expression "is applicable not only to information or ideas that are favorably received by the public or regarded as inoffensive or as a matter of indifference, but also to those that offend, shock or disturb the State or any sector of the population".

이 그래피티를 모든 사람이 좋아했는지는 전혀 이 판결과 관련이 없습니다. 예술은 그 정의 자체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사가 한 유명한 말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천박한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서정적"<sup>21</sup>입니다. 실제로 국제인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대중이 좋게 받아들이는 정보나 생각뿐 아니라 불쾌하다고 느끼거나 무관심한 내용에 대해서도, 나아가 어떤 공동체나 정부를 불쾌하게 만들거나 충격을 주거나 불편하게 만드는 내용에도"<sup>22</sup> 적용됩니다.

Your Honor, a criminal conviction on account of the defendant's act of 6 June 2018 would amount to a disproportionate restriction of his right to free speech. In fact, it is my firm position, supported by the above arguments, that this debate should not take place in a criminal court.

---

<sup>21</sup> *Cohen v. California*, 403 U.S. 15, 1971, U. S. Supreme Court Justice J.M. Harlan II  
*Cohen v. California*, 403 U.S. 15, 1971, 대법관 J.M. Harlan II 의 말 인용.

<sup>22</sup> Position expressed more than 40 years ago in *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n° 5493/72, § 49, 7 December 1976) and included subsequently in the bod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이것은 유럽인권재판소의 *Handyside v. the United Kingdom*, (n° 5493/72, § 49, 7 December 1976)에서 인용한 것이며, 후에 국제인권법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2018 년 6 월 6 일에 행한 일로 피고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그의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애초에 형사사건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어야 한다고 굳게 믿습니다.

### 3. Chilling effect on freedom of expression

#### 표현의 자유에 대한 냉각효과

Freedom of expression is one of the basic conditions for progress in a democratic society and for each individual's self-fulfillment. The threat of criminal sanctions, especially imprisonment, exerts a profound chilling effect on such freedom. A criminal conviction for a non-violent form of expression could easily discourage the Korean public from voicing their opinions and lead to self-censorship and reluctance to engage in society, thus eroding, one of the key pillars on which a functioning democracy depends.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입니다. 형사처벌의 위협, 특히 징역의 위협은 이렇게 중요한 자유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비폭력적인 표현을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한국에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고, 나아가서는 자기검열과 사회적 논의참여에 대한 단념을 야기하여 민주주의 사회를 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를 침식시키고 말것입니다.

#### CONCLUDING REMARKS

##### 결론

Your Honor, South Korea is widely consider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with its population enjoying free speech and fair trials. The duty of this Court is to reconcile law with unconventional art as well as to determine the limits of public sensibility and thus educate the Korean public. Establishing these boundaries by reference to the feelings of the most easily offended and least tolerant members of a community cannot be in the interest of any society. The way in which this Court judges this case and its object, the graffiti, will shape the way they will be perceived at large by the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The defendant's conviction could mean a serious step in the wrong direction as it would send the dangerous message that non-violent forms of expression could lead to imprisonment.

존경하는 판사님, 대한민국은 공정한 재판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법원은 법과 통상적이지 않은 예술 행위를 조화시키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국민정서의 경계를 세우고 대중을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를 사회에서 가장 쉽게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기준에서 세운다는 것은 그 어떤 사회에도 유익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한국 사회가 그래피티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피고의 형사처벌은 비폭력적인 표현도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Your Honour, the act of painting the Berlin Wall cannot and should not be looked at as an isolated act of vandalism. Completely stripping the graffiti of all meaning and context is to ignore the artistic gesture altogether, alongside its meaning and symbolism. It is the interplay between the various factors involved in this case, rather than any one of them taken in isolation, that should convince Your Honor of the grounds for acquitting the defendant.

존경하는 판사님, 베를린장벽에 스프레이 페인팅을 한 것은 단순히 기물파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이해될 수도 없습니다. 그라피티의 모든 의미와 뒷배경을 배제하는 것은 그 예술적 행위 전체의 의미와 상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이유에서가 아니라, 사건의 전체적인 요소들을 보았을 때, 판사님께서도 피고가 무죄판결을 받아야 함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Mr. Jeong has signed his work with his recognizable pen name. It was never his intention to hide his identity or elude justice. He confessed to his act immediately and answered all questions posed by the Korean authorities in a truthful manner. When he was asked to erase his work, his heart was broken but he complied. Later that night he wrote to me: "Today I erased the graffiti. But in fact, it was the graffiti that erased me."

정태용씨는 그라피티에 선명하게 본인의 필명을 적었습니다. 즉, 정씨는 한번도 본인의 정체를 숨기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정씨는 곧바로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자백했고, 경찰조사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임했습니다. 그라피티를 지우라고 요구받았을 때에도, 무너지는 심정을 뒤로 한 채 묵묵히 협조하였습니다. 그날 밤 정태용씨가 저에게 한 말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는 그라피티를 지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그라피티가 저를 지운 것입니다."

Your Honor, the critical focus in this case should fall on the fact that Mr. Jeong is not a danger to society and that his erasing of the graffiti and the mental distress it has caused him is punishment enough for his act. Mr. Jeong has learned his lesson and paid the price. For the defendant, a criminal conviction would have a life changing and hugely disturbing impact, especially given his fragile mental state.

존경하는 판사님, 이 사건의 본질은 정태용씨가 한국 사회에 위험한 인물이 아니며, 본인의 예술작품인 그라피티를 지우면서 받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이미 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정씨는 이번 일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었고, 값을 치루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있는 피고에게 형사처벌은 삶을 송두리째 바꾸고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Your Honor, Mr. Jeong's acquittal will send a positive message not only to Korean society bu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well, a message of tolerance and respect for free expression.

존경하는 판사님, 정태용씨의 무죄선고는 한국 사회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관용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존중이라는 매우 긍정적인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Yours Sincerely,

**ANDRA MATEI**

안드라 마테이 배상

Attorney for the defendant

피고 변호사